영어어문교육 *제29권* 2호 2023 여름
https://doi.org/10.35828/etak.2023.29.2.85

중등영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범대학 연계 직무연수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이유진
(강원대학교)

Lee, Yoo-Jean. (2023). The needs analysis and program development of teacher training for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in connection with a school of education: The case of Gangwon provinc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9*(2), 85-108.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teacher training program to effectively enhance the instructional expertise of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in Gangwon province by collaborating with a local school of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researcher proceeded with two Focused Group Interviews (FGI) with a total of three English teachers, consisting of one middle school teacher and two high school teachers. A questionnaire was provided ahead of each interview which was carried out via Zoom. Drawing upon the questionnaire responses and the information gathered from the interviews, the researcher analyzed the training experiences and specific needs of the three teachers. Then a 30-period teacher training program was designed, taking into account the identified needs as well as the current state of teacher training. To finalize the program selection criteria and determine its detailed contents, the second interview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proposed 30-period program. It was determined to separate the training program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s, offering both online and offline sessions during regular semesters and vacations. The teachers' opinions on effective ways to activate training were also provided. Final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arising from this research were presented.

[secondary school teacher/teacher training/Gangwon-do/school of education, 중등영어교사/직무연수/강원도/사범대학]

I. 서론

최근 4차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 2022 개정교육과정까지 등장

하게 되면서 급격한 교육변화에 대한 대응과 중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교과교육 전문성 신장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김경혜, 안경자, 2021). 특히 영어는 세계 공용어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외국어(EFL)가 아닌 제 2언어(ESL)로서 그 입지가 더욱 굳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학 진학 및 취업에 있어서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박혜영, 민찬규, 2021). 이는 곧 중등학교 영어수업의 질에 대한 제고와 이를 위한 영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교육격차가 증가하였고(박미희, 2020),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과 다수의 하위권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른바 학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이병민, 최정은, 2020; 이정연 외, 2020; 장인철 외, 2022). 특히 영어 교과목에 있어 서울시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으나(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 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 서울이 아닌 경기도, 부산과 같은 다른 지역의 경우 영어 교과목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학력저하 현상이 보고되었다(박미희, 2020; 장인철 외, 2022). 강원도 역시 중등학생들의 영어성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서울 지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도 서울 지역과의 지역격차는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었으나, 유독 코로나 시기 이후 강원도와의 격차가 더욱 커졌는데 신철균 외(2021)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였다. 현재 강원교육 5대 정책 기본방향에서는 학생들의 학력과 관련하여 '교육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실현', '교육과정 강화', '대입 진학 지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한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3년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현장 교원의 연수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강원도교육청, 2023).

그동안 강원도에서 중등교원의 교과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위주로 진행되었고, 소수의 직무연수를 교육청 단위에서 시행해 왔다. 또한 교내 교원학습공동체, 수업평가개선프로젝트(수평선), 도 내 지정(교육과정연구회 등) 또는 자율연구회(강원교육정책연구회 등)를 통한 직무연수가 지속되어 오기는 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직무연수가 체계적으로 제공된 바는 없었다. 따라서 도 교육청과 사범대학 연계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낙하산(top-down)식 교원 직무연수 전달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등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전반적으로 더욱 향상시켜 지역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영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등학교 영어교사 초점 집단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통해 직무연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최근 교원연수의 중점 추진방향

교육부(2022)에 따르면 2022년 교원연수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맞춤형 연수 지원, 미래형 연수 체제 강화, 교원 연수 내실화가 강조되고 있다. 우선 맞춤형 연수라 함은 자격연수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및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자격연수를 운영하는 것, 연수기관 자율 편성 영역을 활용하여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 그리고 집합교육이나 원격연수, 실행학습 등 다양한 연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개별 교사들의 수요와 이들의 생애단계를 고려한 내용의 연수 지원과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미래형 연수 체제라 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연수 방법(예, 실시간, 쌍방향)과 경로의 다양화, 원격연수 내용의 다양화, 그리고 미래 교육체제를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는 집합, 원격, 혼합형 연수를 통해 학기와 방학 중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 연수 내실화라 함은 안정적이고 우수한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부실 연수 운영을 방지하고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평가결과 환류(예,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를 통한 연수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의미한다. 이는 곧 연수를 맡은 강사들의 전문성과 연수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최근 교원연수에서 중점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연수 기관에서 정해진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다루어야 하고,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수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연수내용과 강사들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영어과 교원연수

영어과 교원연수는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 스스로 본인의 전문성과 태도 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교육과 훈련이라 할 수 있다(김경혜, 안경자, 2021; 홍예진, 민찬규, 2015). 연수의 종류는 주체에 따라 기관, 학교, 개인 중심으로 구분되며(임병빈, 2013), 먼저 기관 중심 연수 경우 자격연수(예, 1급 정교사), 직무연수(예, 영어교육의 이론 및 방법 연구), 특별연수(예, 학습연구년제, 해외 체험 연수)로 분류된다. 두 번째로 학교 중심 연수 경우 컨설팅, 장학, 연구수업, 교원전문학습공동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중심 연수로는 국내외 교육기관의 학위 취득, 학회, 개인 연구 등 자율적인 연수가 있다. 연수 방법의 경우 이전에는 집합 연수 형태로만 실시되었으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온·오프 통합이나 원격으로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에는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그리고 쌍방향 또는 단방향 원격연수 형태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김경혜, 안경자, 2021; 홍예진, 민찬규, 2015).

현재까지 영어과 연수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먼저 홍예진과 민찬규(2015)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1990년대 초부터 2015년 사이 현직 영어 교사 연수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연구시기, 적용 수준, 연구 방법, 교사 연수 유형, 연구 주제에 따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교사 연수 관련 연구물들의 경향과 특징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진행된 연구부터 점차 정책, 교육 과정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수의 질을 높이고 연수내용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 개개인의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홍예진과 민찬규(2015)는 대부분 설문을 통한 양적연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교사 연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영어 교사 교육 모형 설계와 관련해서는 초·중등 영어 교사를 위한 심화 연수 모형을 논의하고 제시한 이문복 외(2010)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전국에 있는 1,033명의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심화 연수 시기와 방법, 교과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초·중등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에 할당된 총 700시간 중 절반인 350시간은 말하기, 듣기 등과 같은 영어 구사 능력 향상에, 그리고 나머지 350시간은 수업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차시별 구체적인 연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교사들이 근무하는 지역적 특성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박철희 외(2017)의 연구에서는 강원지역 초·중등 영어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교사들의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 연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박철희 외는 Bonrich 우선순위 결정 공식에 따라 총 13개 역량 연수 요구도 중 7순위까지를 반영하여 공통 연수와 특화 연수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교과 전문', '수업', '학생 이해 공감'등과 같이 간략한 주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영어 교사들의 인식조사와 관련하여 홍예진과 민찬규(2016)의 연구에서는 6개월간의 심화 연수를 통한 초·중등 영어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발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기 전과 후, 각각 128명과 11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홍예진과 민찬규는 영어 교사의 전문성을 크게 세 가지로(지식 기반, 실행 시간, 태도 및 신념 기반 요소) 구분하여 어떠한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본인 스스로 영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연수 이후 인식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초등과 중등 영어 교사 간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평균과 표준편차 이외에 교사들의 구체적인 인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후 이효신(2017)의 연구에서는 특별히 중등 신규임용 교사에게 초점을 맞

추어 이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예, 공직관, 교직관, 미래 교육 비전, 학급 운영 기획력 등) 임용 전과 후로 나누어 이들을 위한 연수 교육과정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직관 및 교직의 이해', '학급경영', '생활지도'등과 같은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별로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균 점수만 제시되었을 뿐 교사 개개인의 구체적인 의견은 언급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박혜영과 민찬규(2021)의 연구에서는 243명의 중등 영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계발에 대한 인식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조사하고자 했으며, 교사 전문성 계발 방법을 다섯 가지로(대학/대학원, 교사 연수, 교과연구회/교사 학습공동체, 장학/연구수업, 개인학습), 그리고 수업 전문성 영역 또한 다섯 가지로(영어 사용 능력, 교과 내용 지식,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성찰) 나누어 이 중 교사들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방법과 영역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된 연구들의 한계점과 마찬가지로 수치 이외 교사들의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듯 현재까지의 영어과 교원 연수모형 또는 인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 경우,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교사들에게 필요한 제안을 하기는 하였으나, 차시별로 구체적인 연수 주제가 제시되었다거나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였다거나 또는 교육청과 사범대학이 연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제시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한, 즉 지역적 특성과 해당 지역 내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3. 강원도 교원연수기관의 특징과 사범대학과 연계한 영어과 직무연수의 필요성

각 시·도 별로 교원연수를 담당하는 기관과 연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강원도 경우 교육청 소속 직속연수기관으로 총 6곳이 있으며 각 기관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강원도 교원연수 담당기관의 특성

연수기관명	지역	연수기관 성격	주요 연수 종류
강원도교육연수원	강릉	강원도 주 교육연수기관	· 자격연수 · 직무연수 · 현지맞춤형연수 · 위탁연수
	횡성	강원도교육연수원 분원	· 정책연수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원주	과학·정보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지원 담당	· 직무연수 · 위탁연수

강원국제교육원[1]	양양	강원도 내 초등 및 중등 영어 교사를 대상의 영어 교과 직무연수 및 특별연수를 담당하는 외국어 전문기관	· 특별연수 · 직무연수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춘천	유아·학부모·교원을 위한 연구, 연수, 체험 등을 실시하는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 전담 기관	· 맞춤형 직무연수
강원진로교육원	속초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체험을 위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교사 지원을 위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현장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 직무연수
강원도교육연구원	춘천	강원교육현안을 진단,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연구 기관	· 학교문화혁신 직무연수 · 교육과정혁신 직무연수

송충진 외(2020)에 따르면 강원도 교육청은 교원연수 운영에 있어 도 내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사들의 핵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 현장이 직면한 과제와 그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내용을 중시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자율성과 그들 간의 협력에 기반한 연수방식을 확대하고 학교 단위로 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연수 지원 또한 확대하여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송충진 외(2020)는 7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총 6개의 기관별 연수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먼저 강원도 교육연수원은 최근 3년 동안 이수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강원 국제교육원 경우 6개의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가 나타났으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수 기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경우 프로그램 운영과 기관 및 담당자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강원 진로교육원은 기관 특성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및 공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강원 유아교육진흥원과 강원도 교육연구원은 신청 방법 편의성 부분에 있어 특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영어 교사 위주의 연수가 시행되고 있는 강원 국제교육원의 경우 연수 운영과 관련한 자유 의견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학교 현장 중심의 영어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 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는 점, 원어민 교사의 일방적인 영어강의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는 점 등을 지적한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송충진 외, 2020). 이는 곧 현재까지 제공된 영어연수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학교 현장에서

[1] 송충진 외(2020)의 연구에서는 '강원도외국어교육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강원국제교육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강원국제교육원으로 바꾸어 표기함

교사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기관이 영동지역에 위치하면서 주변 편의시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들로 여겨지며,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원어민 교사의 영어 위주 강의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허주 외(2018), 홍후조 외(2018), 임선일 외(2019), 정송(2018), 송충진 외(2020)는 교원연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 유인성(예, 현장 교사들의 요구사항 분석, 맞춤형 연수 지향, 연수내용 지속적 개선 등), 2) 접근성(예, 현장/재택/원격 등의 다양한 연수 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학기 중 연수 참여 활성화, 학교 단위 자체연수 활성화 등), 3) 지속성(예, 자발성과 주도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강화,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직급/학교급/경력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실습 또는 체험 위주 연수 운영 및 평가 방법 도입 등), 그리고 4) 연계성(예, 사후관리와 현장 확산 및 환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 강화, 사례 중심 연수 내용 확대 등).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 영어과 교사 연수 경우 이들 4가지 요인을 고루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까지 주로 6개의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온 연수를 보완하는 것 외에도 교육청과 도 내 지역 거점대학교 사범대학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강원도 내 사범대학에서 직무연수를 시행하게 될 경우 2022 교원연수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개인 맞춤형 연수내용 구성,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방법과 내용의 연수 제공(접근성), 안정적이고 우수한 연수기관을 통한 연계성 있는 교육 및 부실 연수 운영 방지(연계성), 그리고 다른 연수기관들과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대학 교수와 현장 교사가 강사로서 함께 협력하여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유인성)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연수 이후 학기 중에는 지역과 학교급을 고려한 교사들 간의 소모임을 형성하여 연수에서 배운 바를 직접 적용해보고 사례 나눔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며(지속성), 직무연수 마무리 단계에서는 대학 교수들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설문조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연수 내용 및 운영 방법을 계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연계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근 강원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2023년부터 K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총 14개 교과의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것을 확정한바,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범대학 영어 교과 직무연수에서 필요한 내용과 운영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등학교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FGI를 통해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는 직무연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필요한 연수 내용 및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1. 강원도 중등 영어 교사의 직무연수에 대한 현황 및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2. 강원도 중등 영어 교사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1인의 중학교 교사, 그리고 2인의 고등학교 교사, 총 3인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강원도에서도 각기 다른 지역에 근무 중이었고, 교사 경력은 4-16년 사이였다. 이들의 교직 배경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교사	학교(근무지)	나이 및 성별	교직경력	학위
1	중학교(태백)	40대 초반, 여	15년(2007년~)	석사
2	고등학교(화천)	40대 초반, 여	16년(2006년~)	석사
3	고등학교(강릉)	30대 초반, 남	4년(2018~)	학사

2. 연구 절차

영어 교과 현장 교사의 직무연수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3인을 대상으로 FGI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먼저 1차 FGI에서는 영어 교과 연수 프로그램 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30차시 연수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개발하였다. 이후 2차 FGI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들이 생각하는 타당도, 현장 적합성 및 선호도를 토대로 최종 30차시 계획을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는 FGI는 6-8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나, 본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절한 경험을 가진 영어 교사 수가 적었으며,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교사들 간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조성이 필요했고, 아울러 직무연수에 대한 2회 이상의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총 3인만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1차 FGI에 앞서 3인의 교사들에게는 질문지(부록 1 참조[2])를 제공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답변에 대해 미리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특

[2] 부록 1은 지면상의 제한으로 풀버전은 온라인상으로 제시함. 온라인 주소 참조 (http://naver.me/FQI6hDSQ)

히 질문지 안에 포함된 연수 프로그램 틀(즉, ‘연수내용’과 ‘연수 방법’에 따라 어떠한 범주로 나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범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담긴 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교사와의 개별 통화를 통해 이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제공하였다(부록 1의 표 1 참조). 질문지가 주어지고 일주일이 지난 후, 줌을 통해 90여 분 동안 1차 FGI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참여했던 연수들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과 그 이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교사들이 선호하는 연수 시기와 내용 및 방법, 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정책 방안 등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연구자가 대략적으로 구상해본 영어과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각각 ‘내용’과 ‘방법’의 축으로 설정하고, 교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틀과 추가적 고려사항 또는 현장 적합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차 FGI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는 교사 3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차시 연수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이후 다시 질문지를 제공하고(부록 2 참조[3]) 일주일의 기간이 지난 후 줌을 통해 2차 FGI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30차시 영어과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상세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차와 비슷하게 90분가량 소요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FGI는 모두 줌으로 진행되었고 사전에 주어진 설문지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각 인터뷰 진행 시 줌 회의는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화하였고, 이후 인터뷰 내용을 여러 차례 들으며 전사하였다. 또한 필수적으로 요청하진 않았으나, 참고용으로 각 FGI 전 제공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3인의 교사들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내용 또한 여러 차례 읽어보고 인터뷰 당시 언급된 내용을 보충해주는 설명이나 정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사한 내용과 질문지 답변 내용의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 유사한 개념을 동 주제로 분류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인 3인의 교사들의 본인 확인과 동료 연구자 검토를 통해 연구 방법 및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영어과 직무연수에 대한 중등교사의 경험 및 요구사항

[3] 부록 2는 지면상의 제한으로 풀버전은 온라인상으로 제시함. 온라인 주소 참조 (http://naver.me/G2VmhzIn)

1) 중등학교 영어 교사의 직무연수 경험에 대한 인식 차이

총 1차 FGI 결과에 따르면 먼저 고등학교 교사 2와 교사 3은 현장을 잘 반영한 직무연수가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연수에 참여할 기회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하였다(교사의 직접인용 중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 중등학교 영어 교과는 초등과 다르게 교과 관련 직무연수가 잘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교직 실무 위주의 연수는 많지만, 중등학교 영어 교과만을 위한 연수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참여한 마지막 영어 교과 직무연수가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2010 년이었어요. 그래서 정체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영어 교과 직무연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차 FGI, 교사 2)

이와는 달리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은 중학교 영어 교사의 경우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해결을 위한 연수는 이미 교육청, 학교, 교사 동아리 단위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직무연수 제공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역, 학교, 교사, 학생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담은 맞춤형 연수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사실 이미 이전부터 교육청, 학교, 교사 자체 동아리 주관으로 직무연수는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학력이 하락했다고는 하나, 이는 기초학력평가라 부르는 형태의 시험 결과 수치가 코로나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것뿐이지 학생들의 인지능력이나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학교 수업 상황은 사실상 이미 정상화가 되었고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다시 자연스럽게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력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교원 연수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학생별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시·도 차원에서의 제도·재정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1 차 FGI, 교사 1)

그동안 경험했던 연수 중 기억에 남는 연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사 1은 특별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없다고 했으며, 최근 몇 년간 직접 직무연수 강사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강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연수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였다. 교사 1의 경우 강사로서 여러 연수에 참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 2와 교사 3과는 달리 직무연수의 수가

결코 적지 않다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 2와 교사 3은 기억에 남는 연수로 호주 현지 연수 4주 기간을 포함한 온라인 영어 교사 심화 연수(교사 2), 기초학력과 평가 문항 제작 및 오류분석 등 단기간 진행된 대면 연수(교사 3)를 꼽았다. 교사 2는 호주 학교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육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보완할 점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고, 교사 3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루 간 진행된 연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빨리 익히고 이를 바로 적용해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그동안 경험했던 직무연수에 대한 생각에 있어 다소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교사 2는 사범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인 직무연수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 그동안 교과 연수보다 교직 실무 연수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교과 연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강원도 내 다른 기관이 아니고 K 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연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 그저 너무 반갑고 좋을 따름입니다**. (1 차 FGI, 교사 2)

2) 중등 영어 교사의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사항

연구에 참여한 총 3인의 교사들 스스로 그동안의 직무연수 경험에서 부족하다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는바, 각자 소속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한 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은 다소 달랐다. 먼저 고등학교 교사 2와 교사 3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그에 맞는 교사 역량 함양과 동료 교사들과의 경험 및 의견 공유가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 현재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으로 '영미문학', '영어권문화' 등과 같은 과목이 개설되어있는데, **수업자료가 부족합니다**. 특히 '영미문학' 과목 경우 아예 교과서가 없고, '영어권문화'과목의 경우도 교과서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영어 교과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영어 교과와 차별성이 없고 활동 수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상당히 모호한데요.. **위에 언급한 과목들의 경우 A, B, C 처럼 등급으로만 평가가 됩니다**. 이런 식의 평가 방식에 따른 평가 결과가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에 대한 아이들의 선호도는 높아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 큽니다. (1 차 FGI, 교사 2)

교사 3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최근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더해졌다고 하면서, 특히 평가 방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히 기초학력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의 기본 개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는 평가 방법, 기초학력을 향상히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 예시 및 자료 소개, 실제 수업 시연 및 조원 간 피드백 교환이 담긴 종합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최소성취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평가를 자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차 FGI, 교사 3)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 2는 학교에서 40%에 해당되는 최소성취 미도달 학생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 . .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미리 파악해서 예방해야 하고, 시험 후에는 또 실제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을 보충지도 해야 합니다. 수업과 다른 행정업무도 해야 하고 거기에 미도달 학생들을 지도까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상위권 학생들이요. 이 학생들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룰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차 FGI, 교사 2)

결국 고등학교 교사 경우에는 고교학점제와 최소성취수준보장제와 관련해서 교재, 교수 및 평가 방법 등이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2023년 1학기부터 어떻게 선택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지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직무연수가 필요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생활기록부 내용 입력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표출하였다. 교사가 기재한 내용이 학생의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이하 개세특) 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적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개세특 내용에 특별함을 부여하기 위해 융·복합 수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교과와 어떻게 융합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과 수업 설계에 있어 많은 교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중학교 교사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고등학교 교사와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교사 1은 중학교 경우 자유학기제와 2023년부터 도입되는 진로학기제와 관련하여 선택과목 지도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하나, 학생들의

성적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학생들의 평가 방식은 비교적 자유롭고 큰 부담이 없다고 했으며, 어떻게 영어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에만 치중한 연수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과의 소통 방법을 배우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아무리 수업에 대한 양질의 콘텐츠와 교수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많은 교사가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수업 붕괴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이나 현장에서 실제 행해지고 있는 구체적인 학생 사안 발생 현황 및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사례 연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1 차 FGI, 교사 1)

추가적으로 교사 1은 중학교급과 고등학교급의 영어 수준이 다를 뿐 아니라 중학교는 현재까지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곧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학교급에 따라 직무연수가 다르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필요시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분리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교육 과정에서 독서가 중요한 만큼 원서 읽기 등 중학교 급에서 읽기 지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나눔과 방법 공유를 위한 연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Collocation, Phrasal verbs, Idiom 등으로 일컬어지는 덩어리 표현들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방법을 익히기 위한 연수 과정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급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수업 및 융합 수업 등**의 실제 사례와 방법이 공유되고 스스로 적용까지 해보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차 FGI, 교사 1)

한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된 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습이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영어교육과정 흐름을 개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학교별로 매해 입학생마다 달라지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실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중학교 교사 입장에서 교과 내용 영역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교사들에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에서의 분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영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급에 맞는 교과 내용을 구성하고 교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차 FGI, 교사 1)

> 입학생을 대상으로 3 개년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교과 **교사들이 각 교과목의 연계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을 어느 학년에 배치하고 몇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는지 구성해보고 학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교과 내용과 교육과정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학생 및 학교 특성과 상황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차 FGI, 교사 2)

>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초·중·고 기간을 거치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지를 모든 학교급의 교사들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영어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각 학교급에 따라 알맞은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차 FGI, 교사 3)

위에서 언급된 초·중·고 교육과정 이해 및 재구성 외에도 중·고등학교 직무연수 내용으로써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된 것으로는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 방안, 온라인 툴을 활용한 영어 수업 방법이 있었으며, 영어 교사로서의 영어 실력 함양을 위한 연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들 각자 유튜브, 전화영어, 앱 등을 통해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직무연수에서까지 이러한 부분을 다룰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한편, 직무연수 내용 외에 연수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해서 3명의 교사 모두 녹화 동영상, 실시간 비대면, 대면 연수를 적절히 활용한 온·오프라인 혼합형 연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연수보다는 사범대학에서 제공되는 연수인 만큼 일정 기간을 두고 학기 중, 방학 중, 그리고 연수 이후에도 꾸준히 교사들 간에 다양한 수업사례와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 선생님들의 고충을 감안했을 때, 1-2 시간짜리 단편적인 연수보다는 **하나의 주제 하에 다양한 연수가 들어가 있는 방학 중 집중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 일간 하루 5-6 시간 정도요. 또한 대부분의 연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되, 다만 **연수의 시작과 끝부분에**

> **해당하는 '연수 참석 시 필요한 기초이론 강의, 연수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한 수업 시연과 관련된 조원 간 의견 나눔'과 같은 내용은 온라인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 연수 프로그램에서 적용단계에 **'실습에서 개발한 자료나 습득한 방법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 후 결과 산출'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 상관없이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모두 연수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한 학기 동안 적용 후 얻은 결과물과 적용 과정 중에 겪었던 고충 등을 학기 중과 방학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차 FGI, 교사 2)

> 현재 일반 수업 나눔 연수는 주로 주중 또는 주말, 심화 직무 연수는 주로 방학 중에 실시됩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방학에는 개인적인 스케줄과 겹치게 되어 선뜻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중에는 수업이나 학생 지도와 같은 학교 업무로 인해서 수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연수 운영 기간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는 합니다. 더욱이 현재 계획 중인 30 차시 연수의 성격상 온라인만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순 강의는 방학 전 혹은 학기 중 단방향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남은 차시를 집합 대면으로 실시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운영이 가능하다면 연수 프로그램 중 가능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차 FGI, 교사 3)

이 밖에도 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교사 3은 학교 기숙사 제공을 건의하였다. K대학교가 영서에 위치하고 있어 영동에 있는 교사들의 경우는 오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교사들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므로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다면 방학 때 약 2-3일 정도 집중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아울러 교사 3은 춘천은 도내 다른 연수기관들과는 달리 근처에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연수 기간 중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사들끼리 사례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K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제공되는 직무연수이므로 연수 주제에 따라 전임교원과 강사 인력을 매치하고, 실질적인 사례 공유에 있어서는 학교 현장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를 통해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실제 학교 수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현장에 있는 교사의 비중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실제 다양한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성공 혹은 실패 사례와 보완점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보통 연수들에서는 운영이 잘 된 경우만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 오히려 실패했거나 이를 보완하여 성공한 정보 등을 접할 수 있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직 교사 위주의 인력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차 FGI, 교사 1)

> . . . 예를 들어 **영어과 시험 문항 출제 원리 등과 같은 핵심 개념이나 이론 분야는 사범대 전임교원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야, 특히나 수업 나눔과 같은 현장의 경험이 필요한 연수는 현직 교사분들의 강의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차 FGI, 교사 2)

총 3명의 중등학교 교사들의 1차 FGI에서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강원도 학생들의 영어 학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 주제로 2022 개정교육과정 이해,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최소성취기준 보장 프로그램 운영방안,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 지도 및 평가방안, 자유학기제에 알맞은 영어교육, 융·복합 수업방안,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 방법, 다양한 온라인 툴을 활용한 영어교수법 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강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 전임교원과 현직 교사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지식 전달 보다는 교사들 간에 좀 더 많은 토론·토의,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수 이후 현장에서 배운 바를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 사례와 수업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2. 맞춤형 영어과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구성과 개발방향

1차 FGI 종료 후, 연구자는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30차시 연수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이를 질문지에 포함시켰고(부록 2의 표 1 참조), 이를 바탕으로 3명의 교사들에게 30차시 프로그램 선정 기준을 1-3안까지 제시하였으며 이는 표 3에 나타나있다.

표 3
30차시 영어과 직무연수 프로그램 선정 기준

	목적	15차시	15차시
1안 (방법 분리)	일회성이 아닌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연수	강의+실습 (25-27차시 대면)	적용+성찰+ leader's action (3-5차시 줌실시간)
2안 (대상 분리)	방학 중 신학기 준비	중학교 (15차시)	고등학교 (15차시)
3안 (기초 또는 심화 단계 선택권 제공)	다양한 주제를 빠르게 훑고 지나가길 원하는 경우와 꼭 필요한 주제	· 1차 30차시 연수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Intro]와 마지막 [콜라보] 주제는 5단계 (즉, 강의, 실습, 적용, 성찰, leader's action) 이수 필수	

를 깊이 있게 다루길 원하는 경우 모두 만족	· 나머지 6개 주제 중에서는 6개를 모두 선택하여 이수하거나(Choice 1) 그 중 3개를 선택하여 심화과정을 이수하도록 (Choice 2) 함 · '강의+실습'은 방학 중, '적용 + 성찰 + leader's action'은 학기 중

사전에 주어진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볼 수 있는 일주일의 시간을 가진 후, 2차 FGI를 줌으로 진행하였다. 교사들은 30차시는 집중적으로 진행 시 3-4일 정도 내에 다 마칠 수 있는 차시이며, 다양한 주제를 여러 개 겉핥기식으로 대충 다루기보다는 가장 관심이 있는 연수 주제를 1-3개만 선정하여 각각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관심사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으며, 교사들이 언급한 학교급에 따른 관심사 차이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직무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관심사 차이

중학교	고등학교
· 중학교의 경우 현재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운영으로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으로 구성되고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교실, 토론토의 등 지식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의 교수·학습 역량뿐 아니라 학문과 학문 간, 교실 안과 밖, 교과 내에서 융·복합을 자유롭게 해낼 수 있는 능력 함양이 필요함 · 학년별로 교재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교사들과의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함	· 공통 영어 과목의 경우 충분한 수업자료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음 · 진로 선택 과목의 교재 선정 및 자료 개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정확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함 · 진로 선택과목과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 진행 시, 정확한 진로 선택 과목명을 기재하여 무엇을 위한 연수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고교학점제에서 기초학력 및 최소성취 미도달 학생 지도 및 예방도 큰 관심사이므로, 진로 선택과목 연수 시 함께 다룰 필요가 있음 · 융·복합 수업에 중요성을 두는 중학교 교사들과는 달리,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곧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사들의 담당 교과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수업 시수는 부족해지는 상황이므로 고등학교에서의 융·복합 수업은 현재 꼭 우선순위는 아님

이렇듯 학교급에 따른 관심사에 있어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발견됨에 따라 교사들은 모두 1차적으로는 표 3의 2안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꼽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완전히 분리하여 각 학교급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하였다. 또한 학교급 별로 분리 시 15차시는 너무 짧고 30차시가 적절할 것이라 하였다. 아울러 1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교사 모두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꾸준하고 연속적인 연수

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방학 중 집합 연수(대면)를 통해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고 연수에서 배운 것을 학기 중 수업 시간에 적용한 후 학기 말에 성찰의 시간(실시간 줌)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 **학기 중 주말 또는 방학 때 1 박 2 일, 또는 2 박 3 일 집합 연수를 통해 강의 및 실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학기 중에 적용한 후, 학기 중간이나 말에 연수에서 만나 뵈었던 선생님들과 의견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차 FGI, 교사 2)

> 수평선이라는 사이트에서 선생님들, 동료들과 고민한 평가 방법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웠던 점 하나는 사이트에 평가 방법과 내용을 공유하고 끝나다 보니,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어 볼 기회는 있지 않았습니다.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학기 중 적용을 하고 지역별, 권역별로 묶어서 충분히 의견공유를 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연수의 운영 형태로는 강의, 실습은 대면 집합 연수로 진행하고, 적용과 성찰을 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영동지역 선생님들끼리 모이고자 하더라도 정선, 태백 등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줌 그룹별 장을 뽑아서 이용하게 된다면 더 용이 할 것 같습니다. (2 차 FGI, 교사 3)

결국 제시된 1-3안 모두를 고려하여 연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수 프로그램은 부록 3[4]에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연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연수 홍보 방법에 대한 경로 재탐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강원도 교사 대부분이 사용하는 메신저('모두톡') 또는 네이버밴드('강원도 중등교원')를 통해 공지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한편, 연수 참여시 승진점수나 인사 이동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교사 간의 경쟁심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점수 부여보다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교사를 선정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권장되었다. 다만 해외 연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전액 지원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일일 것이므로, 교사 본인이 일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범대학에서만의 특별한 연수 주제를 선정하여 꾸준히 운영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

[4] 부록 3은 지면상의 제한으로 풀버전은 온라인상으로 제시함. 온라인 주소 참조 (http://naver.me/FoR24Br2)

> 이왕이면 사범대학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연수 주제를 선정하고, **매번 연수 주제를 바꾸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혹시나 상황상 바꾸어야 한다면 일부만 바꾸고 나머지 주제들은 유지하는 쪽**으로요. 예를 들어서 기존 연수 주제가 세 가지인데, 주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두 가지는 유지하고 한 가지 정도만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 교사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고 그 연수를 듣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간혹 좋은 연수라고 소문이 나서 신청하려고 보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난처하더라고요. (2 차 FGI, 교사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FGI를 통해 연구자는 첫 번째로 현장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유인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방학과 학기 중, 방법적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그리고 대면 집합 연수 기간 동안은 학교 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것까지 고려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및 실습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연수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인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했으며, 마지막으로 방학 중 집합 연수 이후 학기 중과 말 줌을 통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례 나눔 및 유용한 수업자료 공유가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지속성과 교사들 간 연계성을 확대해나가고자 하였다. 즉, K대학교 사범대학에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율적인 중등 영어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법을 고안하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허주 외(2018), 홍후조 외(2018), 임선일 외(2019), 정송(2018), 송충진 외(2020)가 강조한 교원연수의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요인(유인성, 접근성, 지속성, 연계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즉,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 내 중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수요를 고려해 기존의 직무연수 프로그램들과는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실제로 연수가 시행되면 연수 마무리 단계에서 세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현장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사범대학만의 특수성을 가진 직무연수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K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맞춤형 영어과 중등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원도 중등학교 교사 3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FGI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교사들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자 하였다.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6개의 주요 기관을 통해 이미 다양한 연수가 시행되어오고 있으나, 교육청과 지역 내 사범대학이 연계하여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직무연수를 제공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특히 영어 교과의 경우는 전무했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강원지역 중등 학생들의 영어성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했으며, 이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중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전문성 함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FGI 결과, 3인의 중등학교 영어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연수내용으로는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최소성취기준 보장 프로그램 운영방안, 고교학점제 진로 선택과목 수업계획·운영·평가방안, 자유학기제 영어 과목에서의 융·복합 수업 운영방안, 학생과의 원만한 의사소통 방법, 다양한 온라인 툴 활용법 등이 있었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교사들은 집합연수 시간 외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른 교사들과 최대한 많이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어진 2차 FGI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 간 연수내용에 있어 필요로 하는 바가 매우 상이함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자는 학교급을 분리하여 30차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중학교 연수 경우에는 진로·주제선택 영어 과목에 대한 교재 제작 및 효율적인 융·복합 수업 진행 방법, 공통영어 과목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융·복합 영어 수업 사례 공유와 관련한 내용들 중심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연수 경우에는 진로 선택 영어 과목에서의 교재 제작, 효율적인 교수 방법, 과제 개발 및 평가 방안 마련(최소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평가 방법 포함), 수업사례 공유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는 3인 영어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방학 중 대면으로 3일간 집합 연수를 시행하고, 이후 학기 중에는 주기적인 줌 소그룹 모임을 통해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보고 그에 대한 경험을 동료 교사와 나누며, 학기 말에는 수업 진행 결과와 소그룹 활동 내용 및 소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연수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연수 프로그램의 홍보 및 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메신저 및 네이버밴드 활용과 해외연수에 대한 기회 제공이 제안되었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집합 연수 기간 중 학교 기숙사 및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직무연수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교사들의 수요 파악과 사범대학만의 특별한 주제 선정 및 제공이 건의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3인 영어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30차시 영어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중등 영어 교사 직무연수 구성에서 연구자는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1)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 2) 방학-학기중 연계 온·오프라인 혼합형 연수 제공, 3) 대학교수와 현장 교사와의 협력 강의를 통한 부실 연수 운영 방지, 그리고 4) 연수 이후 교사들 간의 지속적인 사례

나눔과 자료 공유 등 네 가지가 그들인데 앞으로 실제로 프로그램 적용의 기회를 가지고 성과분석을 하면서 보완해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범대학에서만 제공해줄 수 있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접근성, 유인성, 지속성, 연계성 요인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다른 타지역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다소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FGI에 참여한 교사가 소수였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와는 다르게 각 시·도 별로 해당 지역 사범대학과 교육청이 연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어왔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각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영어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더욱 더 발전된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원도교육청. (2023). *2023 주요업무계획*. https://www.gwe.go.kr/mbshome/mbs/kr/download/menu03/2023%EB%85%84_%EC%A3%BC%EC%9A%94%EC%97%85%EB%AC%B4%EA%B3%84%ED%9A%8D.pdf

교육부. (2022). *2022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27&boardSeq=8927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5&opType=N

김경혜, 안경자. (2021). 영어과 교사연수에 관한 초등영어 교사의 경험 및 인식. *영어학, 21*, 981-1003. https://doi.org/10.15738/kjell.21..202109.981

박미희.(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https://doi.org/10.32465/ksocio.2020.30.4.005

박철희, 민경용, 김왕준. (2017). 생애단계별 교사연수 모형 개발: 강원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 17*(19), 101-121.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9.101

박혜영, 민찬규. (2021). 중등영어교사의 수업 전문성 계발 실태 및 인식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 21*(3), 951-97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3.95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 4. 26). 작년 중학교 75.9% 중위권 감소,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코로나발 교육격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 *코로나 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2021-1 현안분석 보고서).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송충진, 원유림, 최일지, 최지연, 한길수, 김현주. (2020). *강원도교육청 교원연수 지원 내실화 방안*. 강원도교육연구원.

신철균, 위은주, 안영은.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학교 교육격차 분석: 등교일수 및 도농간 차이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9*(5), 47-71. https://doi.org/10.18230/tjye.2021.29.5.47

이문복, 이노신, 조민철. (2010). 초·중등 영어교사를 위한 맞춤형 심화 연수 모형 개발 연구. *영어어문교육, 16*(3), 269-289.

이병민, 최정은. (2020). *서울시 초, 중, 고등학교코로나 19 대응 원격교육 현황 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효신. (2017). 중등 신규임용교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 17*(10), 289-312.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0.289

임병빈. (2013).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사 연수 현황 분석을 통한 영어교육 발전 방안. *영어어문교육, 19*(4), 323-351.

임선일, 김대유, 조인제, 이용민. (2019). *경기도 교직원 연수기관 체계 재구조화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장인철, 김현아, 최이진. (2022). 부산 지역 중학교 코로나19 교육격차 양상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교육, 49*(1), 5-33. https://doi.org/10.22804/jke.2022.49.1.001

정송. (2018).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현황 및 인식 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허주, 이동엽, 김소아, 이상은, 최원석, 이희현, 김갑성, 김민규, 이슬아. (2018).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I):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홍예진, 민찬규. (2015). 현직 영어과 교사연수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영어교과교육, 14*(3), 233-261. https://doi.org/10.18649/jkees.2015.14.3.233

홍예진, 민찬규. (2016). 심화 연수를 통한 영어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발달 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 16*(12), 1243-1261.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12.1243

홍후조, 민부자, 장소영. (2018).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체계적 분류와 교원의 요구도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5*(2), 157-180. https://doi.org/10.24211/tjkte.2018.35.2.157

부 록 1

1차 FGI 질문지

Ⅰ. 응답자 배경 정보

(1) 성명: _____ (2) 소속: _____ (3) 근무기간: _____

Ⅱ. 교과직무연수 실태 관련

1. 선생님이 참여한 연수 중 가장 효과적인(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교과 직무연수 프로그램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 강원도 중등교원에게 필요한 교과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중등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무엇일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주변에 있는 강원도 중등교원들의 연수 참여 양상을 기초로, 교원들이 선호할 연수 시기, 연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방학 또는 학기 중, 주 몇 회+몇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몇 시간, 현직교사/강사/사범대 전임교원 강의 비율 등 고려 가능)

***이하 생략. 링크 참조(**http://naver.me/FQI6hDSQ**)**

부 록 2

2차 FGI 질문지

Ⅰ. 1차 FGI 결과를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다음 <표 1>은 지난 1차 FGI 결과를 반영한 30차시 영어과 직무연수 프로그램입니다.

<표 1> 강원도 중등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영어과 연수 프로그램(*일부 내용만 예로 제시)

내용 \ 방법		강의	실습	적용	성찰	Leader's action plan
교과 내용 (9시간)	*[Intro] 반갑다, 강원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1.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2. 초·중·고 영어교육과정(수준과 내용)에 대한 이해 및 분석 … .	1. 영어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급에 맞는 교과내용 구성 및 교수방법 선택 … .	'실습'과정에서 짠 교육과정을 소규모/대규모 학교에 적용할 경우 발생 가능 문제점 파악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대학연계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활용 해결방안 토의	'성찰'과정에서 도출해낸 해결방안이 실제로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경험 공유
	이제 진로선택과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선택과목 만들기를 해볼까? (중학교)	중학교 진로선택 과목으로 가능한 <영어원서읽기>, <영어통문장 익히기를 통한 말하기> 지도를 위한 자료 수집 … .	영어원서읽기 관련자료 등 실제 영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토대로 2 - 3 개 chapter 제작	1. 제작한 교재 기반 수업실연 진행(우수 수업실연 영상 공유) … .	1. 수업실연에 대한 동료 피드백 제공 … .	1. 여러 개의 chapter 추가 제작, 교재 만들기 2. 사례나눔, 방법공유
	이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수	1. 제작한	1. 수업실연	1. 여러 개의

***이하 생략. 링크 참조(http://naver.me/G2VmhzIn)**

부 록 3

영어과 직무연수 프로그램 최종안

1-1. 중학교 교사 연수 교육과정(안)

연수 일정	연수 내용	연수 방법	교수요목	시수	운영 방법
1 일 차 (방학중)	반가워, 강원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강의	◦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 초·중·고 영어교육과정(수준과 내용)에 대한 이해 및 분석 ◦ 강원도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영어교과 내용 이해 및 재구성 방법 ◦ 학교급에 맞는 교과내용 구성방법 및 교수방법	2	집합
	소개는 끝났으니 이제 교육과정을 가지고 놀아볼까?	실습 • 적용	◦ 초등학교 교재 분석 ◦ 중1(1학기) 공통영어 과목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 여러 출판사의 교재들 중, 중 1-3 교재 3개를 선택하여 총 4개의 chapter 순서와 주제 정하기(기존 주제 변경·수정 필수) (학년 별 또는 학교 특성에 따라 소그룹 나누기) ◦ 한 개의 chapter를 선택하여 차시 별 수업 내용 구성 ◦ 한 차시 분에 대한 수업계획	5	집합 + 소그룹 모임
	지금은 교육과정 정리하고 그만 헤어질 시간!	성찰 (토의·토론)	◦ 각 소그룹에서 제작한 chapter 및 수업 내용 나눔 ◦ 제작한 자료 공유폴더에 탑재	1	집합

***이하 생략. 링크 참조(http://naver.me/FoR24Br2)**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이유진(교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Email: jinnie@kangwon.ac.kr

Received: April 22, 2023
Reviewed: May 30,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June 20, 2023